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(즉시)
문의	(재)서울대학교발전재단
	기획소통팀 변영현, 전화: 880-5790, 이메일: alley711@snu.ac.kr

배포일: 2024.7.29.(월)

서울대 최초 벤처기업 창업한 공과대학 박희재 교수 SNU프리시전 공학연구기금, 장학금 쾌척

- 서울대학교 제1호 실험실 벤처기업 에스엔유프리시전(SNU Precision)을 창업한 공과대학 박희재 교수(기계설계학 학사 1979-1983)가 SNU프리시전 공대 학술기금과 장학금 등 약 2억 원을 쾌척했다. 박 교수는 이외에도 서울대 공대 연구재단에 기금교수, 기계공학부 창의공간 운영 기금 등 68억 원의 주식을 기부한 바 있다.
- 서울대학교는 2024년 7월 24일(목) 관악캠퍼스에서 유홍림 총장, 이준환 발전재단 상임이사, 이창하 공과대학 학생부학장 등 주요 교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박희재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.
- 박희재 교수는 “우리가 가진 핵심 기술로 논문을 쓰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상용화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도 엘리트 집단이 할 일”이라며 창업 당시의 어려움을 떠올리며 “지금도 창의와 열정, 도전정신으로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는 후배이자 제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”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.

□ 유홍립 총장은 “박희재 교수님의 기술과 창업을 통한 인류 가치 창출의 공헌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” 며 “이번 기금은 서울대가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중히 활용하겠다” 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.

□ 1998년 2월 대학원생과 서울대 최초로 벤처기업인 에스엔유프리시전을 설립한 박희재 교수는 1985년 본교 석사 졸업 후 1990년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. 2019년에는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박사 학위 후 20년 이상 동안 학문·산업·사회적 업적이 뛰어난 경우 수여하는 공학 분야 최고 학위인 공학원사(Higher Doctorate in Engineering) 학위를 받았다.

□ 에스엔유프리시전은 박 교수의 연구 분야인 정밀 측정 기술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검사장비, OLED 연구 장비를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. 박 교수는 대학에서 창업 당시 애로사항 등을 정부에 건의하여 벤처기업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서 오늘날 대학에서 창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으며, 또한 회사 설립 후 10년 후인 2008년 처음으로 동종 업계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후 현재까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.